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스승의 주일 특별메시지

사람을 귀하게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보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



이중윤 목사 (서울교회 담임)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듯 하라’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인다면서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된다.

예수님은 비천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치셨다.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보아야 한다. 사람마다 단점이 있듯이 또한 좋은 점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려면 그가 한 일보다 할 일을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한 일이 실패했다고 하여 일꾼을 과소 평가한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종종 자기의 필요에 의해 사람을 평가하지만 나에게서 설령 필요하지 않은 인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인물일 수도 있음을 알고 주님의 필요에서 그를 재인식하고 발견해야 한다.

무익한 자를 유용한 인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 평가절상을 위해 힘을 다하는 스승이 되도록 기도하자.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집사 및 권사 선출 위한 공동의회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제10대 집사 및 제9대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린다. 오늘 공동의회에서는 지난 4월 30일 임시당회에서 공정한 집사 후보 105명과 권사 후보 105명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며 과반수 득표자 중 종다수로 집사와 권사 각 70명씩 선출하게 된다.

투표는 1차에 한하며 OMR 용지로 전산투표를 실시한다. 특별히 유의할 것은 추천된 후보 중 누구든

지 선택하되 70명을 넘게 기표하거나 투표용지 좌측 상단의 집사, 권사 기표란에 표시가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헌법 88조 1항에 의거 서울교회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입교인)은 누구나 투표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오늘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기 바란다. 집사, 권사 후보의 자격은 서울교회 운영규정 제5조 3항(2006년 3월 25일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다.

< 운영규정 제5조 3항 >

구분	집사	권사
나이	만 35세 이상 된 남자(주민등록상 1973년생 포함)	만 50세 이상 된 여자(주민등록상 1958년생 포함)
신력	세례(입교)교인으로 품없이 5년 이상 경과한 자	세례(입교)교인으로 품없이 5년 이상 경과한 자
봉사	서리집사로 2년 이상 봉사한 재단, 2007년도 서리집사 임명자도 포함	서리집사로 2년 이상 봉사한 재단, 2007년도 서리집사 임명자도 포함
성경	담당 3:8~13 해당자	담당 3:3~11 해당자
모범	신덕이 있고 봉사에 모범된 자, 주일찬양예배, 수요일예배 참석자	신덕이 있고 봉사에 모범된 자, 주일찬양예배, 수요일예배 참석자
이명애은 타교회 직분자(인수집사, 권사)	본 교회 등록 1년 이상 된 자(2007.4.30 등록자까지)	본 교회 등록 1년 이상 된 자(2007.4.30 등록자까지)

“Our Challenge for 21st Century”

프랑스 교회 지도자들 내일 도착

- 제16차 KIMCHI 신학세미나 위해 -

전교인 - 10일간 특별 새벽기도로 함께 한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준비해온 제16차 KIMCHI 신학세미나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세미나는 내일(5월19일, 월) 저녁 7시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10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 프랑스에서 오는 32명의 교회 지도자들은 새벽기도회(5시30분)와 11과목의 강의와 토의, 기도원과 기독교 관련단체와 교회 및 기독교 학교 방문, 그리고 우리교회 다락방 모임

에 참석하여 한국교회의 원동력을 배우고 체험하게 된다.

은 성도들은 이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거둬나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한 큰 일꾼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멀리 프랑스에서 오시는 교회 지도자들이 무사히 도착하여 자국 교회의 앞길을 바꿀 귀중한 10일이 되도록 기도한다.

교구찬양대회 은혜 중에 마쳐

사랑상에 4교구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특송

지난 5월16일(금) 오후 7시 본당에서 열린 2008 교구찬양대회를 은혜 중에 마쳤다. 이번 교구찬양대회는 지난 번 2006 교구찬양대회에 이어 모든 교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참여하여

본당이 차고 넘치는 전국잔치의 한마당이 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우리교회 예배다부와 호산나 학교에서 특별출연을 하여 더욱 의미있는 대회가 되었다.

- 사랑상 : 4교구
- 믿음상 : 2교구
- 소망상 : 9교구
- 화평상 : 1, 3, 5교구
- 희락상 : 7, 11, 12, 13교구
- 충성상 : 6, 8, 10, 14 교구



미리암 여성 합창단 모집

오디션: 6월10일(화) 오후 1시 503호

우리교회는 문화의 기독교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교회 부설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산하에 무지개 어린이 합창단을 창단한데 이어 성인을 위한 수준 높은 미리암 여성합창단을 설립하고 단원을 모집한다.

전문가에 의해 고강도 훈련을 통하여 전문 합창단으로 태어날 이 합창단은 주 2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연습을 실시하며 정기 연주와 지방 및 해외 공연 그리고 병원과 구치소 방문연주 외에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형태의 찬양 순서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이 합창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음악적 소양 이외에 위의 시간에 맞추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Audition이 6월10일(화) 오후 1시에 503호에서 실시되며 선발인원은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파트에 각 8명씩이며 50세 이전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오디션 곡목은 성가곡, 한국가곡, 찬송가 중에서 자유롭게 한 곡을 부른다.

지원서는 사무국에서 배부하고 있다.

아가페 타운 건축위원회 구성

우리교회 당회는 아가페 타운 건설을 위한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임명 발표했다.

위원장: 오정수 장로, 서기: 홍성주 장로, 회계: 노송성 장로, 위원으로 양준경 집사, 김재근 집사가 각각 임명되었다.

정정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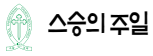
지난주일 발표된 <2008년 집사 후보자 명단> 및 <2008년 권사 후보자 명단>에서 행정착오로 집사 후보자 2명과 권사 후보자 1명이 교체됨을 알려 드립니다. 공동의회 시에는 명단을 다시 배부하지 않으므로 오늘 특히 번호와 이름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낮에 나누어 준 후보 명단을 지참하기 바랍니다.

전망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완료

교회에서 대지역과 개포동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망 엘리베이터는 15명이 탑승할 수 있고 2층과 5층, 8층만 정지하여 급행으로 성도들의 이동을 돕게 됩니다.

노약자를 위해 양보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천사!



박예진 (유년부)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 찬양대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찬송가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저를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흥얼

거려요.

너무 예쁘게 춤을 추시는 엔젤스 선생님.

어제도 예쁘게 춤을 추는 모습을 컴퓨터로 보고 열심히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너무 귀여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우리 담임선생님.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니 내 마음속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저도 어른이 되면 선생님들 같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장재원 (초등부)

어느덧 꽃샘추위도 가고 가장 푸르른 달 5월입니다. 초등부로 올라와서 선생님을 못 뵈게 되니 무척 아쉽습니다. 아직도 선생님고 재미있고 알기 쉽게 성경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에 성경에 푹 빠지게 해주시고 신앙도 잘 자라게 해주셔서 지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선생님 덕분이며 잘 가르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들었던 6.25 전쟁이야기, 한국에 오신 선교사 이야기, 구약시대의 여러 전쟁과 관련된 역사적인 일들이 저에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재미있었는지 지금도 생생히 제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예수님을 닮도록 지도해주셨기에 지금의 발전된 저의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할 수 있게 이끌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신앙을 키워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예원 (중등부)

2003년 8월, 처음 영국 북부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인 아버딘에 갔습니다. 동네에는 화강암 건물이 인상적인 'Dyce Church' 라는 오래된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1명과 찬양대도 없이 교인이 약 백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첫날 혼자서 당당이 서툰 영어로 초중등부실을 찾아 갔는데 선생님 2명에 아이들은 열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는 유일한 외국인이었습니다. 어릴 때 다니던 교회와는 달리 이렇게 작은 교회는 처음이었던 저는 어색한 영어로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공과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0분내내 책으로만 공과공부를 하던 우리나라와는 달리 게임으로, 놀이로, 그리고 노래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어색했지만, 담임이셨던 '캐롤' 선생님의 친절함 도움과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차츰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친구가 없던 저에게 처음 친구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 주셨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영여성경책을 선물로 주시고, 외국인이라고 전혀 차별하지 않으신 것은 물론, 그곳에 머물렀던 2년여 시간 동안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캐롤' 선생님 이야말로 저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하게 보살펴주시는 선생님이 계셨기에 저는 지금 서울교회 중등부에서 찬양대로서, 또 편집부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먼 미국 소녀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언젠가는 나도 그 선생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박유란 (고등부)

매 주일마다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글로써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하니 쑥스럽네요. 항상 우리를 위해 영적인 가르침과 사랑을 한없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소한 것부터 큰일까지 모든 일에 귀 기울여주시고 조언도 해주심은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때로는 친구처럼 편하게 웃고 떠들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처럼 따끔히 지적도 해주시고 또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웃으며 맞아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중 하루이지만 주일날 선생님을 만나서 말씀과 기도 이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일주일동안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였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고 또 다시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라 세상 유혹에 빠지기 쉬운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기도와 말씀으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도 평소에 잘 표현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저도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한발 한발 다가가 주신 사랑에 꼭 보답할게요.

선생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내영 (대학부)

영적으로 한 단계씩 성장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선행하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유혹과 핍박이 가득한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크리스찬의 삶이 진실로 쉽지 않다는 것을 매순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로역정의 길을 굳건히 걸을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주님께서 스승님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기회를 빌어 부족하지만 진심을 담아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모습에서 겸손과 헌신을 배우

고, 진한 눈빛과 자애로운 웃음으로 권면하실 때면 그 속에 녹아있는 열정과 사랑을 느낍니다.

보수와 이득이 있는 일이 아님에도 친히 몸을 낮추시고 저희들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스승님, 그러한 모습에서 저희는 12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친히 씻겨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스승님!

부족한 저희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아직 온전하지 못하여서 스승님의 세심한 배려에도 감사하지 못하였고, 저희를 향한 미소만 보았지 그 뒤에 숨겨진 눈물자국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무릎

을 꿇고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호소하시는 스승님, 그 기도가 저희들의 버팀목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엘리아에게 가르침을 받고 세상에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엘리사처럼, 사도 바울에게 제자로 택함 받아 위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디모데처럼 저희도 스승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작은 편지가 미흡하나마 스승님께 작은 보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종운 목사 명예 신학 박사학위수여식 답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23:5) 오늘 저는 다윗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불탄 포도넝쿨처럼 논두렁에 버려진 나를 우리 하나님은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그릇에 비해 부어주신 은혜가 과분합니다. 정직히 말해서 내 그릇이란 작은 종지에 불과한데 동이로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천한 질그릇에 불과한데 거기에 보물을 담아 주셨습니다. 나는 사람됨이 선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사람도 받지 못할 상급을 이 땅에서까지 부어 주셨다면 이것이 내 잔이 넘치는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해야될 수 없는 은총을 입은 다윗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삼하7:18) 감격하며 부른 찬송을 존귀하신 하나님께 나도 이 자리에서 아니 영원토록 드릴 것입니다.

·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노력에 비해 성과가 너무나 큼니다. 받을 갈 때 한 고랑을 갈았는데 뒤를 돌아보니 세고랑씩 갈려 있었다는 스페인 성자 이시들의 전설처럼 나의 노력과 수고에 비해 주수가 풍성하며 업적에 비해 보상이 과분할 때가 어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습니다.(시13:6) 주의 종들을 배출하고 하나님의 일을 앞서 이끌고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중은 총장님과 이광순 대학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교수님들께서 내 뺨을 높이셨으니(시89:17) 아무 공로 없이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이 이런 것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시려는 사랑으로 받겠습니다.



김중은 총장이 이종운 목사에게 학위를 수여



답사하는 이종운 목사

·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기도에 비해 응답이 풍성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내 짝이었던 방정일군의 갑작스런 자살을 계기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겠다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부름으로 알고 나는 내 결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note표지마다 목사 이종운이라 써놓고 고등학교시절 제 별명은 이목사였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가르치는 교수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는 note표지에 박사 목사 이종운이라 썼습니다. 그래서 대학시절 제 별명

은 이박사였습니다. 미국에서 신학공부를 할 때 아시아복음화에 대한 강한 부르심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50살까지는 가르치는 사역을, 50 이후부터는 교회에서 목회사역을 감당케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모두 다 이루어 주셨을 뿐 아니라 더 크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말로 할 수 없는 기쁜 일인데 기도한 것보다 더 좋고 풍성한 열매를 주셨다면 어찌 감사치 않겠습니까.

오늘, 나의 나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내 스승 선배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요,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고 나를 격려해 주신 서울교회 성도들과 국내외의 흠여져있는 성도님들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업적이나 공로가 있어 주신 학위가 아니라 이 학위에 걸맞는 종이 되라는 명령으로 알고 이 생명 다 하도록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장신대의 사명과 명예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특별찬양

오늘저녁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우리교회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헵시바 중찬단이 찬양을 드린다.

화려한 개인기의 독창이나 장대한 맛의 합창과 달리 중창은 적은 소수이지만 그 어느 연주 단체보다 마음과 마음의 교감이 필요한 자기자기한 연주 형태이다. 우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지속적으로 찬양에 임하는 헵시바 중찬단은 우리의 귀한 자산이며 이들이 드리는 찬양은 소중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것이다.

오늘 저녁에는 "주는 저 산 밑의 백합(Michael Barrett 곡) 외에 2 곡으로 찬양 드린다. 지휘에는 배유리 선생, 반주에는 백승희 선생이 수고 한다.

2008 봄 시즌 제9회 화요정오음악회

이번 주 화요 정오음악회(5.20)는 오자경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교회 할렐루야 오르가니스트)의 오르간 독주회로 준비된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9일(월)부터 28일(수)까지 16차 KIMCHI 신학세미나를 인도한다.

■ 이영조 집사(음악감독)는 아시아 작곡연맹(ACL) 주관 2009년도 세계대회 조직위원장에 선임되다.

■ 주간식당 봉사: 제2권사회(5.18) 빌립선교회(5.25)

■ 금주의 식사 : 조정식 장로 김영식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 떡잔치 : 이미리, 미영, 미경 집사 (아버지 이종운 목사 명예박사 취득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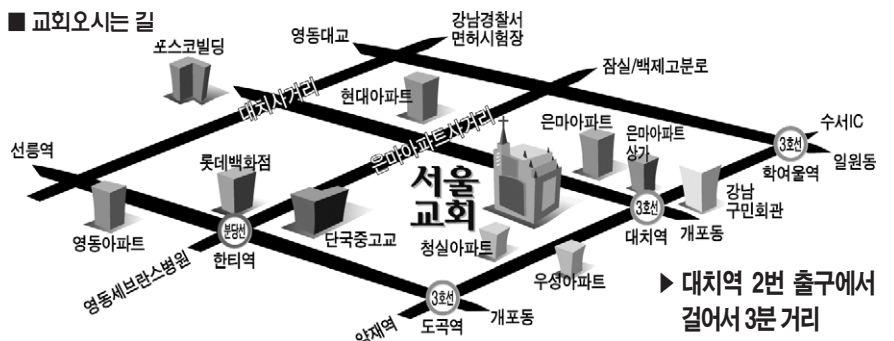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올해 안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2. 아가페 타운 건설,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3. 33학기 목회자세미나, 16차 KIMCHI세미나 위하여
4. 6.6-25까지 열리는 흥해작전 승리를 위하여
5.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